

2025.01.20.(월) 증권사리포트

삼성중공업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세 지속

[출처]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

4분기 영업이익 1,505억원, 컨센서스 부합

4분기 매출액 2조 6,410억원(yoy +8.5%), 영업이익 1,505억원(yoy +90.5%, OPM 5.7%)를 달성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주잔고 내 고가 선박의 매출 비중 상승 기조의 지속과 직전 분기 대비 조업일수가 늘어나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동사의 24년 신조 수주 실적은 약 73억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핵심 선종인 LNG운반선 22척을 포함하여 총 36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연간 상선 수주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해양 부문에서는 코랄 FLNG 프로젝트의 수주가 지연되고 있다. 모잠비크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한다.

미국 LNG 수출 승인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LNG운반선에 대한 발주 증가와 해양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동사는 올해 약 100억달러 이상의 신조 수주 성과가 예상된다. 상선 부문에서 28년 인도 슬롯에 해당하는 LNG운반선 15~20척을 포함하여 60억달러 이상의 신조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양 부문에서는 지난해 수주 파이프라인에서 이연된 코랄 FLNG와 델핀 FLNG 또는 웨스턴 FLNG 중 1기가 추가되며 약 40억달러의 신조 수주가 기대된다. 올해 수주 전망을 반영한 연말 동사의 수주잔고는 3~3.5년치 일감을 계속 유지하며 실적 개선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7,000원으로 상향

2025년 매출액 10조 7,823억원(yoy +9.5%), 영업이익 7,408억원(yoy +54.7%, OPM 6.9%)을 전망한다. 올해는 26년 인도 예정인 카타르 LNG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며 상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다만, 26년부터는 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23년 수주 물량들의 매출 인식 비중이 늘어나며 실적 개선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해양 부문의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최근 중국의 조선/해운사들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등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Peer 그룹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는 17,000원으로 상향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5,944.7	8,009.4	9,843.7	10,782.3
영업이익	-854.4	233.3	479.0	740.8
EBITDA	-655.2	474.0	718.6	980.4
세전이익	-554.7	-295.7	268.5	619.1
순이익	-627.4	-155.6	232.5	464.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19.4	-148.3	244.1	487.5
EPS(원)	-704	-168	277	554
증감률(% YoY)	적지	적지	흑전	99.7
PER(배)	-7.3	-46.0	40.7	23.5
PBR(배)	1.25	1.98	2.71	2.75
EV/EBITDA(배)	-10.2	20.7	18.4	14.9
영업이익률(%)	-14.4	2.9	4.9	6.9
ROE(%)	-16.1	-4.2	6.9	12.4
순차입금비율(%)	61.1	88.0	91.0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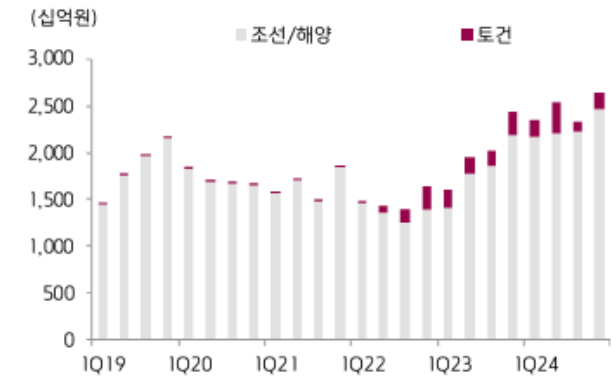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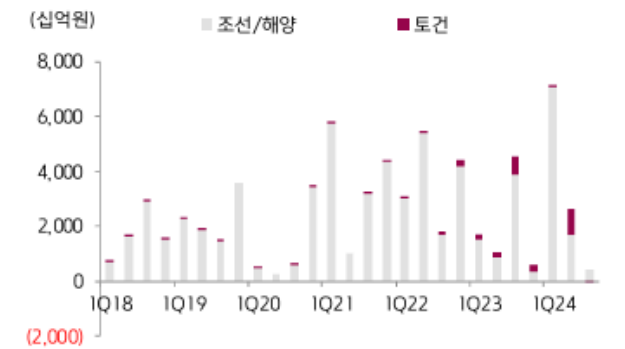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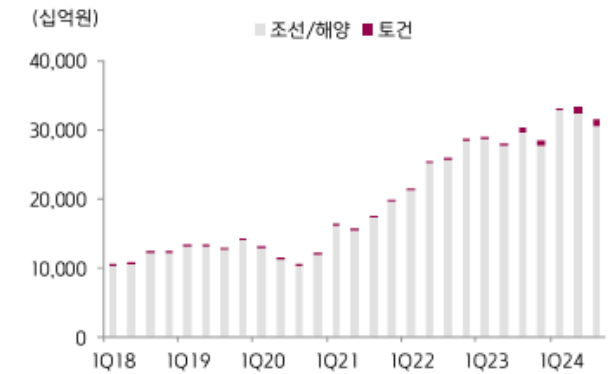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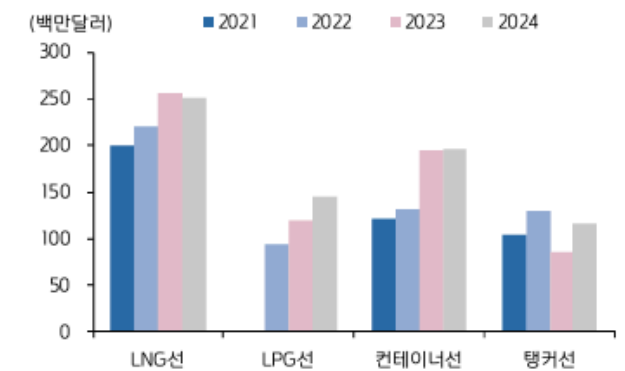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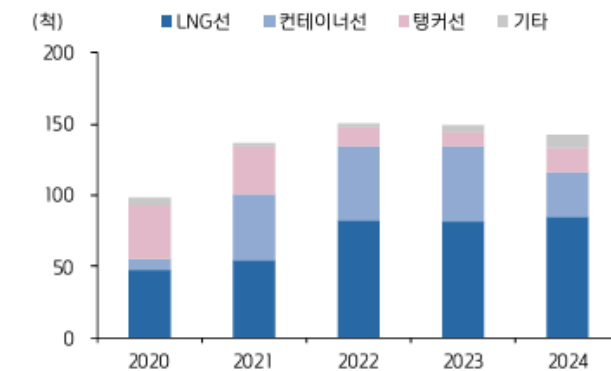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신조선 발주 선가 추이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중공업 선종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삼성중공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이노베이션

캐시카우가 더해지니 마음이 편하다

[출처] BNK투자증권 김현태 애널리스트

정유 개선, E&S 합병 효과로 4Q 실적 예상 상회할 듯

4Q 실적은 매출액 19.6조원, 연결OP 768억원으로 컨센서스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일부 추정치에 24년 11월 합병 완료된 E&S 실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매출액부터 컨센서스와 꽤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S 실적은 24.4Q에는 2개월 치만 반영되는데, 매출액 1.9조원, OP 1,376억원이 예상된다. 정유는 전분기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배터리는 반대로 일회성이익 기저효과로 4Q에는 다시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정유 손익 개선은 정제마진 반등 및 유가 안정화 덕분인데, 사우디OSP가 25.1Q에도 하락하고 정제마진도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OP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 예상

IRA 등 전기차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25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배터리 손익은 25년 상반기까지 정체, 하반기 개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OP는 1.9조원 (+1.6조원 yoy)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S 실적이 온기로 반영되면서 OP가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정유 손익 개선이 +0.5조원 정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탄유와 석화는 yoy 감익이 예상되나 폭이 크지 않고, 하반기 배터리 실적 개선이 유탄유+석화 감익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E&S 합병으로 Base 이익 레벨이 높아져 배터리 부문 적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된 셈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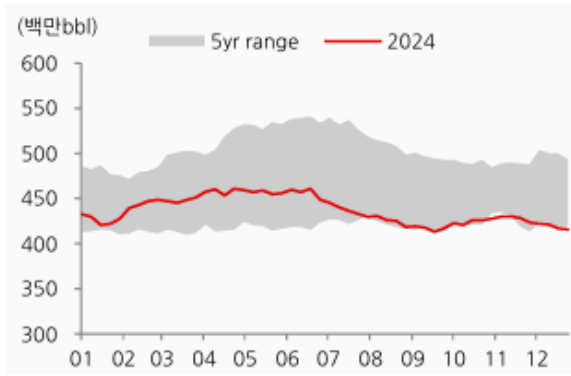
정유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배터리 부진을 커버할 수 있는 E&S 실적이 더해져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시총은 정유 가치 10조, E&S 10조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Fig. 1: SK이노베이션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78,057	77,288	74,896	84,931	90,981
영업이익	3,917	1,904	232	1,874	2,197
세전이익	2,860	932	-1,915	1,174	1,148
순이익[지배]	1,569	256	-1,757	614	654
EPS(원)	16,743	2,624	-16,513	4,035	4,292
증감률(%)	437.2	-83.9	적자전환	흑자전환	6.4
PER(배)	9.2	53.5	-	31.6	29.7
PBR	0.7	0.6	0.8	0.9	0.9
EV/EBITDA	6.0	11.9	20.1	13.5	13.3
ROE(%)	8.5	1.2	-8.3	3.0	3.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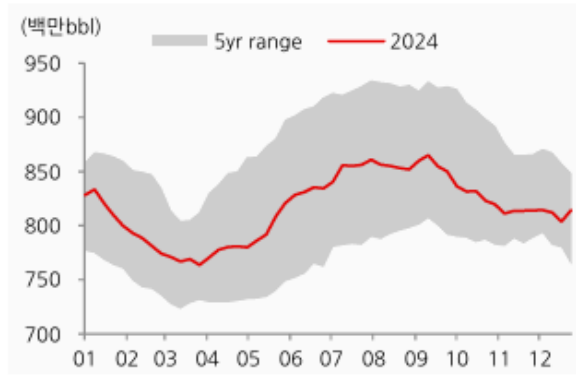
자료: SK이노베이션,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8: 미국 원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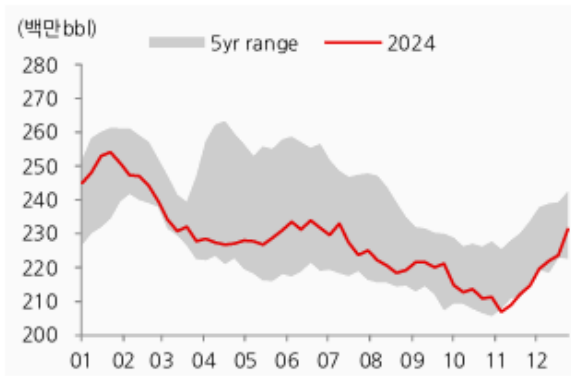
자료: EIA, BNK투자증권 주: 가로 축은 '월'을 의미

Fig. 9: 미국 석유제품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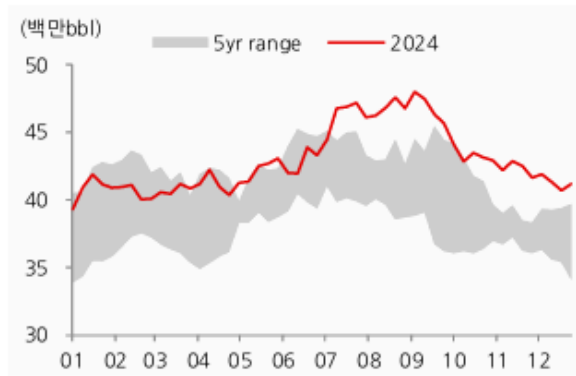
자료: EIA, BNK투자증권 주: 가로 축은 '월'을 의미

Fig. 10: 미국 휘발유 재고 추이



자료: EIA, BNK투자증권 주: 가로 축은 '월'을 의미

Fig. 11: 미국 항공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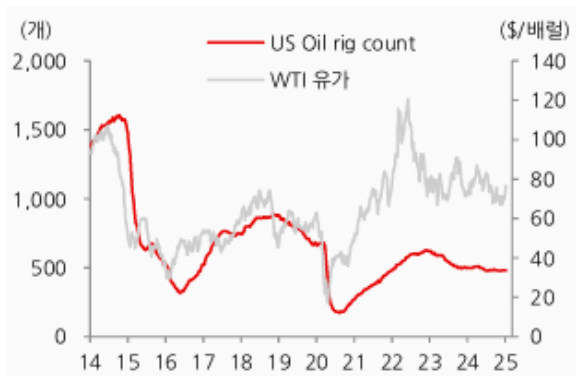
자료: EIA, BNK투자증권 주: 가로 축은 '월'을 의미

Fig. 12: 미국 원유 실수요 추이



자료: EIA, BNK투자증권

Fig. 13: WTI 유가 vs. Rig Count



자료: EIA, BNK투자증권



씨에스윈드

2024년 역대급 실적, 2025년도 증익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4Q24 Preview: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2024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114억원(+117.1% YoY)과 영업이익 904억원(흑자전환)으로 추정한다. 1) 타워: 매출액 4,369억원(+115.6% YoY)과 영업이익 467억원(흑자전환, OPM 10.7%), AMPC 303억원으로 전망한다. 2023년 4분기 타워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미국/베트남 등 생산시설 증설한 법인들의 실적 향상 등이 예상된다. 2) 해상풍력 구조물: 매출액 3,387억원(+108.6% YoY) 과 영업이익 406억원 (-52.1% YoY, OPM 12.0%)으로 추정하며 여러 차례 이루어진 단가인상 효과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4년은 대내외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해였으나 역대 최고 실적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중요한 2025년 실적: 영업이익 YoY +9.8%로 증익 전망

2025년은 실적은 매출액 3.1조원(-4.5% YoY)과 영업이익 3,510억원(+9.8% YoY)으로 추정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실적 감소로 시장의 우려가 컸으나 타워부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증설을 끝낸 베트남 공장에서의 해상풍력용 타워 생산 확대와 두 자릿수대의 영업이익률 달성, 미국 공장 생산 안정화 및 주요 고객사향 단가 인상 반영으로 수익성 개선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타워부문 영업이익(AMPC 제외)은 전년 대비 163.4% 증가한 1,421억원으로 전망하며 영업이익률도 6.3%(+3.5%p)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수주잔고 감소로 2025년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나 영업이익률은 10% 내외 수준을 보이며 견조할 것으로 추정한다.

타워 및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견조한 수요

트럼프 리스크에도 씨에스윈드는 타워와 하부구조물 부문에서 꾸준히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 하부구조물은 지난 11~12월 3건의 공시를 통해 약 1조원의 수주가 유입되었으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타워 역시 꾸준히 오더가 들어오면서 올해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 풍력발전의 전기생산 비중은 이제 10%를 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려면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195	1,375	1,520	3,211	3,068
영업이익	101	42	105	320	351
영업이익률(%)	8.5	3.1	6.9	10.0	11.4
세전이익	91	5	24	255	27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6	2	20	210	248
EPS(원)	1,570	45	471	5,079	5,984
증감률(%)	85.7	-97.1	942.0	977.6	17.8
ROE(%)	10.1	0.2	2.2	21.2	20.8
PER(배)	41.9	1,521.1	149.0	8.1	6.9
PBR(배)	3.1	3.3	3.3	1.6	1.3
EV/EBITDA(배)	21.1	29.6	20.7	5.6	4.8

자료: 씨에스윈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콘텐츠리중앙

2Q25부터 편성 정상화

[출처] 메리츠증권 정지수 애널리스트

4Q24 Preview: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4Q24 연결 실적은 매출액 2,102억원(-18.4% YoY), 영업적자 -195억원(적축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영업적자 -117억원)를 하회할 전망이다. [SLL] 방송 실적은 매출액 1,105억원(-15.7% YoY), 영업적자 -102억원(적축 YoY)을 전망한다. <정숙한 세일즈>, <옥씨부인전>, <조립식 가족> 등 캡티브 36회와 <지옥 2>, <나미브>, <미스터 플랑크톤> 등 논캡티브 작품들이 방영됐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품수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Wiip은 4Q24에도 작품 딜리버리가 부재한 만큼 100억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메가박스] 영화 매출액은 733억원(-26.9% YoY), 영업적자 -72억원(적축 YoY)을 전망한다. 4Q24 전국 영화 관람객수는 2,628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764만명 감소했으며, 플러스엠 배급 작품들의 저조한 흥행 성과로 인해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2분기부터 실적 회복 전망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9,686억원(+9.3% YoY), 영업이익 237억원(흑전 YoY)을 전망한다. [SLL] 국내외 OTT 플랫폼들과의 재계약 조건이 적용되는 2Q25부터 제작편수 확대 및 리쿱율 개선이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편수가 예정되어 있는 1Q25 실적까지는 영업적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Wiip의 작품 중 제작비 규모가 큰 <The Summer I Turned Pretty S3> 역시 2Q25 딜리버리가 예정되어 있어 방송 부문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메가박스] 2025년 주요 영화 라인업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미키17> 등 할리우드 대작 개봉이 예고되어 있어 박스오피스 흥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간 사업인 플레이타임도 부실 점포 철수 및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202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지배주주)	EPS (원) (지배주주)	증감률 (%)	BPS (원)	PER (배)	PBR (배)	EV/EBITDA (배)	ROE (%)	부채비율 (%)
2022	852.1	-71.6	-40.2	-2,111	적지	7,324	-13.5	3.9	20.0	-25.4	298.8
2023	993.0	-68.1	-123.1	-6,392	적지	2,559	-2.4	6.0	16.2	-129.4	380.9
2024E	886.1	-48.9	-82.7	-4,291	적지	-1,731	-2.1	-5.2	15.4	-1,036.3	447.6
2025E	968.6	23.7	-18.0	-933	적지	-2,665	-8.8	-3.1	8.0	42.5	457.9
2026E	1,055.0	43.8	1.9	96	흑전	-2,568	84.8	-3.2	6.6	-3.7	444.6

그림1 2025년 SLL 콘텐츠 전망

CAPTIVE | **Tentpole 드라마**
다수 편성

Non-Cap. | **WWOTT 오리지널 제작 확대**
및 극장영화 편수 회복

wiip | **2+α**
작품 공개 예정

<미어 유스>
송중기, 진우희

<굿보이>
박보검, 김소연

<협상의 기술>
이재훈, 상동일, 김대영

<친국보다 아름다운>
김해자, 손석구, 한지민

<케서로>
이준호, 김혜준, 김병철, 김향기

<파인>
류승룡, 양재중, 임수정

<준화연애담>
고아라, 강풀

<넉오프>
김수현, 조보아

<자백의 대가>
전도연, 김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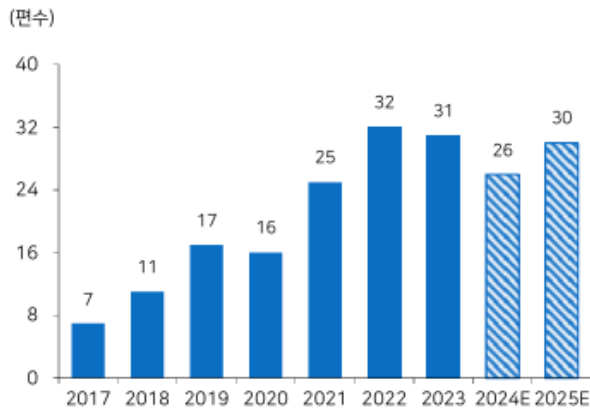
<이 밤에 필요한>
김태리, 홍경

THE SUMMER I TURNED PRETTY SEASON 3
<The Summer I Turned Pretty S3>
Lola Tung, Christopher Briney

<Task>
Mark Ruffalo

자료: 콘텐츠리중앙

그림2 연간 제작편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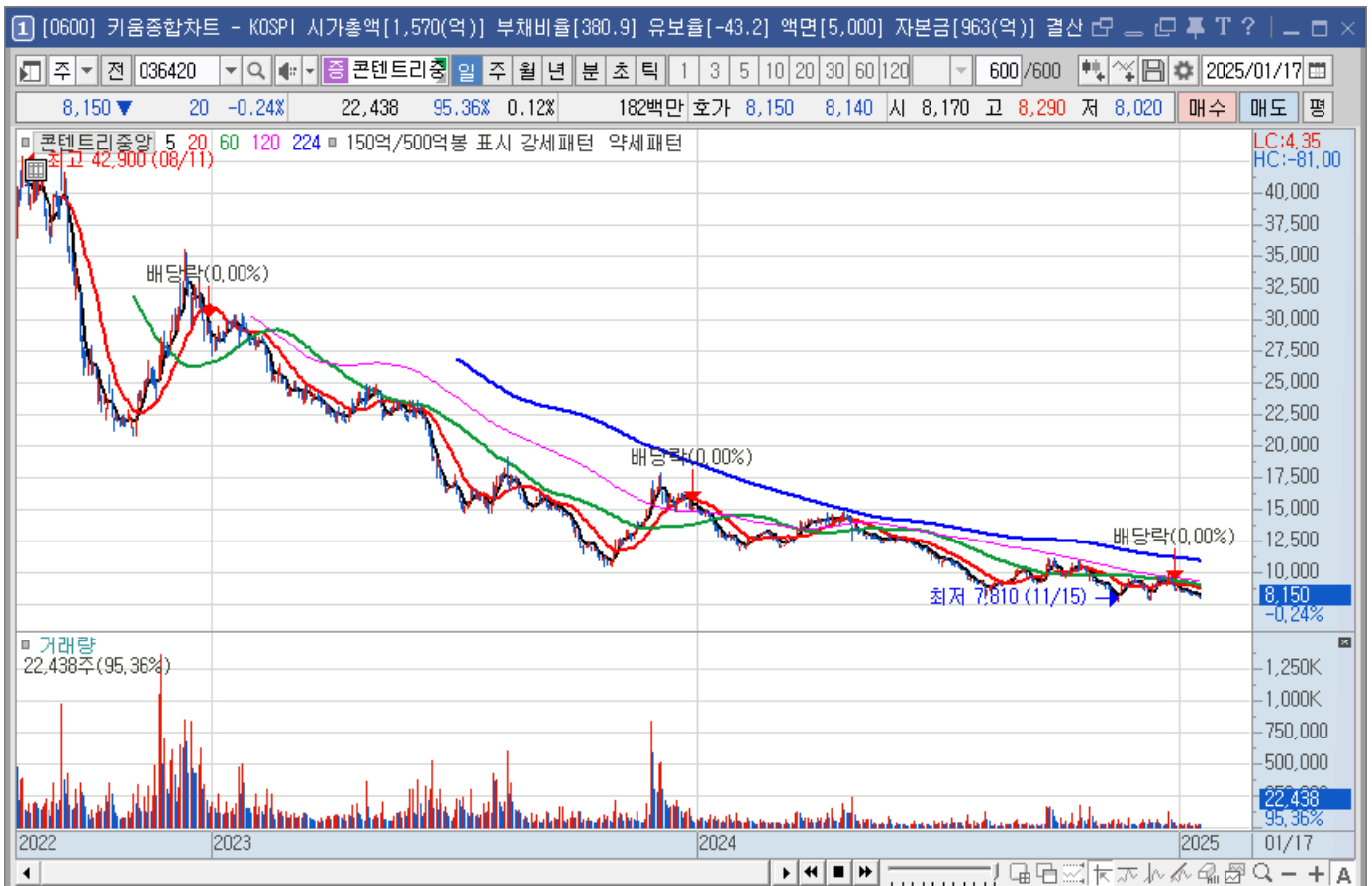


자료: 콘텐츠리중앙,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방송 부문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콘텐츠리중앙,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J프레시웨이

반전의 시기는 온다

[출처]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

소비심리 급락으로 어려운 업황

CJ프레시웨이의 4Q24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9억원(+6% YoY)으로 전망된다. 24년 12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자심리지수가 88.4pt까지 급락하면서 외식 경기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 및 산업체/오피스 단체급식(푸드서비스) 신규 수주, 온라인 매출 성장(O2O) 등을 통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YoY +8% 정도 증가하면서, 전사 실적 방어를 비교적 잘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성 완화를 기다리며

동사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5조원(+9% YoY), 영업이익은 1,055억원(+11% YoY)으로 전망된다. 대형 거래처 중심의 신규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온라인 사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24년에 발생한 의료 파업 영향으로 2분기부터 기저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된다면,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크게 상향될 수 있다. 소비심리 반등에 따른 외식 경기 회복과 병원 경로 푸드서비스 영업 정상화로 인해, 신규 고객 증가 효과 외에 기존 고객들의 매출 회복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계절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3월 이후, 불확실성 완화 강도에 따라 올해 실적 추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2,000원 유지

CJ프레시웨이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2,000원을 유지한다.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거래처 신규 수주, 온라인 매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외식 경기 회복, 병원 경로 정상화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 올해 예상 PER은 4~5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3,074.2	3,228.3	3,505.4	3,886.8
영업이익	99.3	94.7	105.5	117.1
EBITDA	130.9	133.8	131.7	151.6
세전이익	72.8	40.3	73.9	87.0
순이익	59.7	23.5	56.0	66.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4.5	21.7	52.0	62.0
EPS(원)	4,589	1,830	4,384	5,221
증감률(% YoY)	11.0	-60.1	139.6	19.1
PER(배)	5.2	10.6	4.4	3.7
PBR(배)	0.98	0.75	0.65	0.56
EV/EBITDA(배)	3.0	2.9	2.2	1.7
영업이익률(%)	3.2	2.9	3.0	3.0
ROE(%)	18.2	7.3	15.8	16.3
순차입금비율(%)	33.0	39.9	23.1	8.4



대한전선
 수주와 실적 모두 기대되는 25년
 [출처]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

계속되는 양호한 수주흐름

대한전선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7,000원 유지. 4분기 주요 프로젝트의 신규수주만 1.2조원으로 3분기(1.0조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 이는 국내외 경쟁사와 동일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 도래한 노후 교체 주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북미의 데이터센터 투자, 제조업의 리쇼어링 등으로 증가할 전력수요까지 감안하면 올해도 이와 같은 수혜는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4분기 주요 수주는 싱가포르 400kV EHV(Extra High Voltage) 프로젝트(8,400억원, 10월), 스웨덴 420kV EHV 프로젝트(1,100억원, 12월), 싱가포르 230kV EHV 프로젝트(1,400억원) 등

4분기 수주잔고는 3조원 이상으로 '23년 말 대비 1.2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 이는 대부분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3-4년 동안 납품 예정이며 수익성도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22년 이전 수주한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인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 '25년 EV/EBITDA는 11배로 국내외 경쟁사 수준이나 증설이 완료되는 '27년 7배로 가파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4분기 컨센서스 부합

연결기준 4분기 매출 8,711억원(+15% y-y), 영업이익 214억원(+3% y-y)으로 추정. 영업이익률은 2.5%로 저조할 전망이다. 이는 인건비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수익성 높은 '23년 하반기 수주가 반영되는 '25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25년 영업이익은 1,420억원(+24% y-y)로 추정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844	3,328	3,594	3,754
증감률	16.1	17.0	8.0	4.5
영업이익	80	115	142	171
증감률	65.7	43.8	23.8	20.5
영업이익률	2.8	3.4	4.0	4.6
(지배지분)순이익	71	76	96	118
EPS	510	439	513	635
증감률	219.9	-13.9	16.8	23.9
PER	17.9	25.4	25.0	20.2
PBR	1.4	2.1	1.5	1.4
EV/EBITDA	13.3	15.1	11.9	10.2
ROE	7.8	7.8	7.4	7.3
부채비율	97.1	102.9	71.2	68.3
순차입금	103	292	48	195

단위: 십억원, %, 원, 배



LS에코에너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황

[출처]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

유의미한 업황 개선

LS에코에너지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44,000원(기존 36,000원)으로 22% 상향 조정. 투자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1) 유럽을 중심으로 EHV(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2) MV/LV(중저압) 케이블의 내수단가(베트남)와 수출단가 모두 우호적인 상황이고, 3) 미중 갈등 속 UTP 케이블의 북미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국내외 경쟁사 현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업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의 원가 절감 수혜도 계속될 전망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이유로 전력케이블 부문 영업가치에 적용하는 12개월 이동평균 EBITDA를 15% 상향 조정했기 때문. MV/LV 케이블 단가 상승과 원-달러 상승 효과를 반영. 2025년 영업이익은 604억원(+17% y-y)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에는 LS VINA(베트남 하이퐁에 위치)의 MV/LV 케이블(수출 비중 40% 이상)과 LS CV(베트남 호치민에 위치)의 UTP 케이블(97% 이상)이 크게 기여

4분기 실적 기준 컨센서스 소폭 상회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275억원(+14% y-y), 영업이익 147억원(+104% y-y)으로 기존 추정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 이는 12월 급등한 원-달러 환율 때문. 주요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LS VINA의 MV/LV 케이블 5.5%, LS CV의 UTP 케이블 9.0%로 추정. 미국과 유럽향 EHV 케이블 수주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계속될 전망. 모회사(LS전선)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부분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731	863	914	951
증감률	-10.7	18.1	5.9	3.9
영업이익	29	52	60	63
증감률	7.4	75.3	16.9	4.1
영업이익률	4.0	6.0	6.6	6.6
(지배지분)순이익	4	28	33	34
EPS	135	911	1,080	1,125
증감률	흑전	575.9	18.5	4.1
PER	155.0	34.0	35.3	33.9
PBR	4.4	5.6	6.0	5.2
EV/EBITDA	20.9	18.3	18.9	18.3
ROE	2.8	17.8	18.1	16.4
부채비율	162.5	162.9	146.6	132.3
순차입금	125	129	113	114

단위: 십억원, %, 원, 배

